

# 사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벌써 20여년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도 주민들이나 행정관서에서는 주민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지 깊게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다.

지방자치란 단순히 주민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일꾼을 뽑는 데 그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군수나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많은 공적 자금을 들이고, 심지어는 주민들간 발생하는 반목과 질서를 감수하면서까지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이유는 한 마디로 보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행복한 사회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사고 방식으로는 결코 행복을 달성할 수 없다. 자신의 자녀가 매일 술에 찌들어 살면서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할 것

이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지방자치로는 결코 행복한 지역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

흔히 지방의회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꼽는다. 그러나 주민들을 대표한다는 의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보다는 협조와 협력에 비중

이 얼마나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지방의회의 기능은 '행정에 대해 탄지를 거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행정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 문제를 삼는 일은 중요하다. '괴롭힌다'고 표현해도 과장을 짓는다. 공무원들이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

두 번 지적하고 그래도 안되면 욕박지르기도 해야 한다. 그게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지방의회는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 최근 고성군이 추진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 함형완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볼 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안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고 당당하게 외쳤다는 점에서

함의원의 반대표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함의원처럼 모두가 YES라고 할 때 NO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돌아올 기득권층의 비난이나 비아냥거림을 무릅쓰고, 지역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소신껏 활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 모두가 YES라고 할 때 NO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을 두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무원들도 그런 의원들을 좋아한다. 이는 얼핏 들으면 바람직한 것으로 비쳐지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의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행정에 대해 협조하고 협력하려고 생겨난 기구가 절대 아니다. 그럴려면 차라리 지방의회가 없는 것이 더 좋다. 과거 지방의회가 없을 때 행정

산은 단 한푼도 그들의 돈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 주민들의 돈이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 왜 거기에 돈을 쓰려고 하느냐, 왜 저기에는 돈을 조금만 주느냐고 수없이 물어보고 따지면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 번 지적해서 안되면

### 최금란 칼럼

교육학박사, 강원미술심리치료센터 소장



### 미술치료에 대한 이해 <3>

## 아이의 '문제' 만을 파악하려고 한다

우리는 흔히 아이의 '문제' 만을 파악하려고 한다. 그러나 문제 외에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며, 아이 입장에서 문제의 의미, 문제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정신건강 문제로 의뢰되는 소아·청소년의 반은 문제 행동이 그 원인이다(Kazdin, 1987). 따라서 현재 주요 문제를 이해하려는 적절한 예로 문제 행동을 선택했다. 그러나 문제 행동이 없더라도 다양한 문제와 증상들에 동일한 원리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다음은 문제 행동에 대한 외상의 영향을 요약한 것이다.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 배운다. 외상은 영향력이 강하고 장기간 교육 효과를 남기는 강력한 경험이다. 이런 학습 경험이나 자신과 세계에 대한 부정적 믿음들은 울타리로 보호되어 있어 합리적인 접근법으로 잘 변화되지 않는다.

-처리되지 않은 외상은 처리되지 않은 수치심, 죄책감, 화, 공포, 상처, 무력감,

슬픔과 같은 감정을 축적시킨다.

-외상의 연상 자극은 실제 상황보다 더 강한 반응 또는 과잉반응을 유발한다. 새로운 스트레스가 급소를 자극하면 부정적인 믿음과 감정들이 폭발한다.

-새로운 사건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참을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찬 강렬한 반응을 경험할 때, 아이는 충동적으로 행동할 위험이 높다.

이렇듯 문제행동은 사소한 스트레스에 의해 외상과 관련된 과잉반응이 자극될 때 발생한다.

고통스러운 기억은 생생하지만 장벽 뒤에 있기 때문에 처리된 기억들과는 다르게 다양한 심리적 자원을 동원해도 처리가 불가능하다. 즉, 처리되지 않은 기억이나 그 일부가 끊임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도 우리는 중단시킬 힘이 없다.

예를 들어, 강간 피해자들은 "머리로는 내 책임이나 잘못이 아니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치스럽고, 더럽고, 자책하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 강한 영역이 장벽 뒤에 숨어 있는 강력한 믿음과 느낌들을 조절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게다가 장벽 뒤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벽 뒤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처리되지 않은 기억들은 항상 밖으로 나올 순간을 기다리며, 밖으로 나온 후 기억 시스템을 통과해서 사회되어 과거의 일부가 되려한다. 고통스러운 기억은 '나도 정상 기억처럼 처리되어 지나간 기억이 되고 싶다.'고 말하며 그런 순간을 기다린다. 장벽 뒤에 있는 기억들은 관련된 연상 자극에 의해 '자극되거나' 활성화된다. 다르게 비유하면, 장벽 뒤에 쌓여 있는 기억들은 '급소'와 같아서 연상 자극이 이를 건드리면 생각보다 훨씬 강한 반응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현재의 자극에 대해서만 반응할 수 없는 이유다. 장벽 뒤의 기억들도 동시에 자극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현상을 알고 있다. 누구나 상처, 예민한 부분, 아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흔히 "울리

고 싶지 않다면 그녀 앞에서 그의 존재 얘기를 꺼내지 말게." 또는 "그 사람 있을 때 그런 농담은 하지마, 크게 화를 낼 테니."와 같은 말을 한다. 이런 말은 장벽 뒤에 축적된 처리되지 않은 기억들이 있고, 지금도 비슷한 말을 들으면 자극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누구나 급소를 맞으면 실제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극인자가 애매할 때도 겉으로 드러난 아이의 행동만을 보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경험에서 형성된 시각 때문에 아이는 자신을 방어하려 했을 뿐인데, 주변 사람은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공격했다고 생각한다.

미술심리치료에서는 장벽 뒤 즉, 무의식을 의식화하는데 있어서 말로써 표현하는 일반상담보다는 방어가 적어서 훨씬 치료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아동들은 말로써 표현하는 것보다 많은 정보를 그림으로써 표현하여 치료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장점이 된다.

다음호부터는 아동미술심리치료에 대한 사례를 들어 보고자 한다.

### ◇편집국에서

○...지난 16일 열린 거진저수지 독 높임공사 2차 설명회에서, 주민들과 농어촌공사가 사업 타당성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으나 이렇다할 결론은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주민들의 질문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답변을 듣고 재차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더라면 작은 결론

이라도 나올 수 있었을텐데, 답변을 하는 도중에 주민들이 우후죽순처럼 각자의 목소리를 내다보니 혼란스러웠다. 이렇다 자칫 주민들끼리의 싸움으로 번지거나 앓을까 우려되기도 했다. 아무쪼록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돼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게되기를 기대한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현재오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